매일경제
2013.09.07
국제갤러리(주)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 조용히 찾아온

인도의 美

"인도에 가도 좋습니까." 기원전 4세기 동방의 정복자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를 점령하기 직전이었다고 한다. 그리스와 페르시아까지 단숨에 정복한 그는 고산지대를 넘어 인더스 강가에 이르기 직전 한 나무에게 미래를 물었다. 그 나무는 "인도에 가지 말라"고 만류했다. 그러나 대왕은 듣지 않고 더 동쪽으로 진격했고 그 결과 알렉산더 대왕은 풍토병에 걸려 귀환 도중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 정설이다. 결국 대왕은 인도를 완전히 품에 안지 못한 것이다. 전설 속에 전해져 오는 이 '말하는 나무'가 서울 삼청로 국제갤러리 전시장에 놓여 있다.

인도를 대표하는 여성 작가 바티 커(44)가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조각품이다. 나뭇가지 잎사귀마다 각종 짐승이나 괴물의 얼굴 모양이 걸려 있어 눈길을 끈다. 나무가 한때 종교적 기능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새삼 일깨워준다.

바티 커. 그는 과거 신화와 종교, 철학, 여성의 삶에서 영감을 받아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주목받는 작가다.

국내 첫 개인전을 위해 한국에 온 그는 핑크색 바지를 입은 채 남다른 카리스마를 뽐냈다.

"관람객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 이 나무와 대화를 나눴으면 해요." 이 나무를 조각한 의도는 사실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바티 커를 이야기할 때 빠짐없이 등장하는 이가 인도의 대표 작가 수보다 굽타(49)다.

런던에서 나고 자란 그가 지금 뉴델리에서 작업하는 이유도 굽타 때문. 20대에 고국 인도를 여행하던 중 그를 만나 사랑에 빠지고 결혼한 것은 인도에서도 화제가 된 러브스토리다. 굽타의 아내로 불리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 그는 작가로서 남편 못지않은 명성을 얻었다. 지난해 전 세계 현대미술 경매 낙찰총액 기준에서 순위가 껑충 뛰어 192위를 기록한 그는 141위인 남편을 맹추격하고 있는 상태. 국내 작가와는 오치균·서도호와 비슷한 수준이다.

전 세계 미술계에서 아트프라이스 500대 순위에 드는 유일한 부부가 그들인 것이다.

달콤한 러브스토리와는 별개로 그는 페미니즘 계열 작가로 분류된다.

그의 대표작은 인도 여성들이 이마 정중앙에 붙이는 액세서리 '빈디'를 형상화한 패턴이다. 그는 실제 빈디를 캔버스에 계속 반복해서 붙이며 동그라미나 사각형 형태를 그린다. "우리는 늘 반복적인 삶을 살지 않나요. 수학과 과학도 그렇고, 종교적인 행위도 그렇지요. 반복을 즐기는 것은 아마도 이것이 진실에 가깝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입니다."

그에게 빈디는 '세 번째 눈'을 의미한다. 빈디는 새로운 언어이자 상징이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반복적으로 빈디를 붙이다 보면 마치 이것이 연금술인 양 새로운 풍경을 만들어내죠. 15년 전 처음으로 작업했던 빈디가 다양하게 변주되고 확대되는 것이 흥미로워요."

인도 작가지만 그는 불자나 힌두교도가 아니다. 오히려 종교보다 예술이 우위라고 여길 정도다.

"신이 어떤 것을 창조하듯 예술가는 작품을 창조하고 이름을 짓지요. 사실 예술이 종교보다 더 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술가가 창조한 종교적 도상 없이 어떻게 종교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위대한 예술품은 시간을 멈춘 듯한 느낌을 주는 것"이라고 했다. "시스티나 예배당이나 타지마할, 살바도르 달리 작품 등에서 수없이 숨이 멎는 듯한 경험을 했죠."

전시 주제는 'Anomalies(기형)'. 사회에 부합하지 않는 것들에 그는 특별한 시선을 던진다. 종교와 성, 역사와 전통에 대해 그는 도전적인 질문을 던진다. 그에게 예술은 무엇일까. "작업실에 갈 때도 늘 스스로 묻죠. 왜 작업실에 가는지. 저는 예술이 결국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섹스는 무엇이고, 여자는 무엇인가. 언어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나는 누구인가."

지적이면서 진지한 성찰이 돋보이는 그의 전시는 다음달 5일까지. 회화와 조각 30여 점이 인도 현대미술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다.

이향휘 기자·사진/이충우 기자

인도 여성작가 바티 커 개인전

서울 삼청로 국제갤러리 내달 5일까지

이마 한가운데 찍는 '빈디'
인도의 여성성 관통
예술 앞에선 숨멎는 경험
"종교보다 더 큰 존재"

바티 커 '과거와 현재 미래'

매일경제
2013.09.07
국제갤러리(주)

인도 현대미술은 '거대한 코끼리'

아트프라이스 상위권 인도 작가

애니시 커푸어
수보다 굽타
바티 커
지티시 칼라

※ 2012년 전 세계 미술품 경매 낙찰총액 기준.

수보다 굽타 'Leap of faith'

글로벌 현대 미술 지형도에서 인도의 무게감은 어느 정도일까. 인도의 상징 '코끼리'만큼 거대할까.

인도는 2~3년 전까지 중국과 함께 글로벌 미술계에 친디아 돌풍을 일으키며 무섭게 부상했다. 현재 다소 주춤하고 있지만 그 가능성과 잠재력은 더 커지고 있다는 관측이다. 엄청난 경제력에 인구 대국, 고대 문명과 종교의 발상지라는 무시무시한 힘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국과 유럽에 진출한 인도 IT 거부들이 자국 작가들의 작품을 집중 구매하고 있는 것이 인도 현대미술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 주고 있다.

소더비와 함께 미술품 경매 양대산맥인 크리스티는 올 12월에 인도 뭄바이에 경매장을 개설할 계획이다. 크리스티는 홍콩에 상설 경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올 9월에는 상하이, 12월에 뭄바이까지 공략하며 보폭을 늘리고 있다. 일본에도 없는 미술품 경매장을 인도에 설립하는 것은 그만큼 인도 미술시장의 가능성을 높게 보기 때문이다.

커푸어·굽타 등 세계적 작가 배출
종교·철학·계급 문제 깊은 사유
현대미술 중심지 런던·뉴욕 공략

국내에서도 일찌감치 인도 미술의 가능성을 본 이가 '현대미술 큰손'인 김창일 아라리오갤러리 회장이다. 데미안 허스트와 트레이시 에민 등 영국 YBA 작품들을 수집한 그는 중국과 인도를 거쳐 최근에는 동남아시아 컬렉션까지 확보하고 있다. 아라리오갤러리는 2006년 이미 수보다 굽타와 바티 커 등 인도 현대미술 그룹전 '배고픈 신(hungry god)' 전을 기획했으며 2010년에는 굽타의 대규모 개인전을 열었다.

삼성미술관 리움 역시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애니시 커푸어 개인전을 열어 호평을 받았다.

커푸어처럼 인도 작가들은 주로 런던과 뉴욕에 근거지를 두고 활동한다.

같은 영어권이어서 언어 소통에 어려움이 없는 점, 서구 문명과 동양 정신을 잘 융합해 거대 담론을 만들어내는 것도 인도 작가의 강점이다.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은 11월 서울관 개관에 맞춰 '풍경'을 주제로 한 중국과 인도 작가 그룹전을 연다.

류정화 아라리오갤러리 큐레이터는 "인도 현대미술의 특징은 힌두교와 불교에서 비롯된 종교 철학적인 부분과 계급 문제, 여성 차별 문제가 주로 주제로 등장한다"고 말했다.

바티 커의 남편이자 인도색(色)을 가장 잘 보여주는 수보다 굽타는 인도 민중의 삶을 스펙터클하게 형상화해 주목을 받고 있다. 실제 인도인들이 카레를 끓일 때 쓰는 식기를 가지고 그는 거대한 해골의 형상을 만들기도 한다. 죽음이라는 큰 주제를 가장 일상적인 삶의 하찮은 물건으로 풀어내는 것이다.

이향휘 기자